

지리산 4대 종교인 '세월호 천일기도'

8월 30일 실상사서 입재... 지리산 지역 종교·시민단체 참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한국사회가 정쟁,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리산 지역의 종교인들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인 '생명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1000일 기도에 들어갔다.

지리산 종교연대, 지리산권시민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지리산 천일기도 추진 위원회는 8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과 과제인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한 1000일 기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8월 30일 지리산 실상사에서의 입재식으로 시작을 알린 '세월호 1000일 기도'는 오는 2017년 5월 25일 회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도는 지리산 지역 각 종교·시민단체 등이 단체별로 상시 기도와 상설 1000일 기도단에서 진행하는 릴레이 기도로 이뤄진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참사가 던진 과제에 대한 성찰, 국민들에 대한 치유 기원의 기도의 주요한 메시지다.

이를 위해 실상사는 경내 목탑지에 새롭게 상설 기도단을 조성했다. 전 흥익대 교수인 안상수 파주 타이포그래피학교장이 기도단의 설계를 맡았다. 기도정진단에는 세월호 희생자

실상사에 1000일 정진단 제작

매일 1명씩 1000일 릴레이 기도

100일마다 야단법석... 방안 모색

오는 2017년 5월 25일 회향 예정

"政爭이나 화합·사회변화 되새길 것"

304위를 상징하는 태양광 등이 함께 설치됐으며, 옆에는 대나무 304개를 세운 분향소를 별도로 마련했다.

실상사의 정진단은 매일 1명씩 '1000명 1000일 릴레이 기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00일 기도계획을 밝히는 도법 스님

가톨릭 성심원에 설치되는 정진단은 돌레길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매달 지리산권 5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합동기도회와 소규모 토론회를 개최하며 100일마다 야단법석을 열고 한국 사회의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야단법석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패널을 섭외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꾸며질 계획이다.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리산종교연

대 대표 흥현두 원불교 교주는 "지리산 지역 종교인들이 1000일 기도에 나선 것은 '이 사회의 아픔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했기 때문"이라며 "생명평화의 땅,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서 1000일 기도를 통해 치유와 갈등 해소를 기원하고 생명평화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 고문인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조계종 화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초기에는 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자"는 성찰의 구호가 이제는 편 가르기와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면서 "정작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던진 '생명평화와 공동체 가치 회복'이라는 화두는 흔적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죽었다. 이에 대해 어른과 종교인들은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사회 변화를 이루기 위한 성찰을 이어가야 한다. 지리산 모든 종교인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1000일 정진은 세월호 참사가 던진 화두를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tp79@hyunbul.com



천태종, 구인사국제선원 상량식

한국전통불교문화와 수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북학불교문화 체험공간이 올해 말 천태종 구인사에 들어선다. 8월 28일 상량식을 한 구인사국제선원이 바로 그것이다. 선원은 올해 말 완공해 내년 4월경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인사국제선원은 국비 25억 원, 총복도비 7억 5,000만 원, 단양군비 17억 5,000만 원과 자부담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이 투입된다. 7,825㎡(2,370여 평)의 부지에 국제선원 1동, 문화 체험실 2동, 한미음 문, 공양실 및 식당 등 5개동이 들어선다. 김주필 기자

조계종 사미·사미니 수계교육 회향

8월 27일, 직지사 만덕전에서... 소년출가자 7명 포함

조계종은 8월 27일 김천 직지사서 제47기 사미·사미니계 수계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남향자 72명이 사미계를, 여행자 41명이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전계대화상에는 고산 스님, 전계사 종진 스님, 갈마아사리 성우 스님, 교수아사리 무관 스님이 참석했으며 교육위원장 현우 스님,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이 함께 했다. 한편 8월 13일 입재해 16일 동

안 진행된 제47기 수계교육에서는 '청소년출가 및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소년출가자 7명 등 113명의 행자들이 입교해 염불과 습의를 익혔다. 노덕현 기자

지친 마음 산사에서 힐링하세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도닥도닥 템플스테이' 관광주간 무료 이벤트

세월호 참사 등으로 힘들었던 국민들을 위해 템플스테이가 무료 이벤트를 펼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찾는 시간을 통해 희망을 만드는 '도닥도닥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전국의 110여개 템플스테이 운영사들이 동참하는 '도닥도닥 템플스테이'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다만 예약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만 이뤄진다.

본격적인 단풍시즌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되며, 가족 단위 참가자(4인 이하 가족)의 동반 자녀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가을 관광주간을 맞아 특별히 제공되는 본 무료 혜택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에 한하며, 미취학 아동 동반 시 프로그램 참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 7월부터 세월호 참사를 겪은 유가족 및 안산시 소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을 위호하는 치유와 희망 템플스테이를 진행해 왔다. 신성민 기자

아름다운동행, 모금전문기관으로 발돋움

설립7주년 맞아 CI 새단장... 초·중·고 4천5백곳에 10만 저금통 전달



아름다운동행이 제2의 도약을 준비하며 기존 CI(사진 왼쪽)를 대신해 신규 로고와 영문 브랜드 네임(사진 오른쪽)을 발표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설립 7주년을 맞아 CI(Coporate Identity·기업이미지)와 브랜드 네임을 변경하고 모금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8월 29일부터 변경되는 아름다운동행 CI는 기존 사찰을 형상화한 전통적 이미지에서 조계종단의 삼보륜 이미지를 차용해 개발됐다. 글씨체도 붓글씨 이미지가 강했던 기존 서체에서 반듯한 석보체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해외 사업에 용이하도록 'dreaminus(드림인어스)'라는 영문 브랜드 네임도 선정했다. '아름다운동행'이 재단과는 별개로 사회 각계 나눔 활동에 수석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자적이 잇따라 이를 대체할 브랜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던 터였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기존 CI를 7년 이상 사용하면서 확보된 인지도 때문에 변경작업이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면서도 "국제활동에 용이한 영문 브랜드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신규 후원 개발을 위한 이미지 쇄신 CI에 변화를 주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아름다운동행은 CI에 걸맞는 현대적 이미지를 형성, 젊은층 후원자 발굴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드림 아프리카 저금통을 제작, 전국 사찰과 일반 후원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조계종 종립 중·고등학교와 어린이법회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4천5백곳에 10만개의 저금통을 전달해 일상 속 기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저금통은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배포되며 올해 연말에 수거, 전액 아프리카 학교 건립 기금으로 사용한다. 재단은 이를 위해 지난 7~8월에 걸쳐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금통 디자인을 공모, 접수된 작품 중 4개를 저금통 디자인으로 활용한다.

현재 탄자니아에 건설중인 농업학교는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명은 '보리 가람'으로 정해졌으며 총 공사비 30억원 중 현재 18억원이 확보된 상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법화사상 7만자 새긴 새 도량 세워지다

법화정사, 제기동에 중창불사... 8월 24일 중창법회

법화사상 화현을 발원하는 새 도량이 세워졌다. 법화정사(회주 도법)는 8월 24일 서울 제기동에서 중창불사 회향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을 연 법화정사는 대지 860㎡ 연면적 4134㎡규모에 본관과 별관 2개로 나뉘어져 있는 대도량이다. 특히 <법화정> 7만자가 외벽을 장식한 본관은 그 자체로 한권의 <법화경>이다. 서체는 중국 후한시대 서예가인 채옹의 예서체를 사용했으며 이를 새긴 석판 1400여장이 쓰였다.



본관은 조선 세조 당시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법화경> 중 여래수량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여래신력품이 새겨졌다. 법회에는 법화사상을 널리 펼치고자 서원하는 장으로 전국각지의 1만여 불자들이 운집했다. 법회에서는 <법화경> 독경과 함께 대웅전에 봉안되는 부처님 세안식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한인 지성도
한교자 무육과정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준 승려연수 교육과정

2014년 9월 20일(토) ~ 10월 18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인성교육에 관심있는 스님은 누구나 신청가능

자세한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www.hanmaum.org 참조
Tel. 031-470-3200, 3196 (이동통신망 제외)

오여래부처님 화현도량
신비의 돌부처님
부산자비선원

"어째서 이런 일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신비의 가피체험

누구나 오셔서 소원을 얘기하시고 그 자리에서 확인하십시오.
오여래 부처님이 들려주지 않으면 소원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학봉당 진성스님의 40여년 수행결과가 부처님의 가피로 환희롭게 열립니다.

소원따라 이루어지는 오여래부처님의 신묘한 영험

- 다보여래부처님 : 사법고시, 행정고시, 임시준비, 고시 응시생, 재판 중 사형
- 묘색신여래부처님 : 취업, 승진, 특남발령, 결혼인연
- 광박신여래부처님 :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사업발전
- 이포외여래부처님 : 암·불치병·우울증·빙의 등 병고해탈
- 감로왕여래부처님 : 건설·제조·사회복지 등 사업번창

오여래부처님 화현도량
부산자비선원

문의 및 접수(단체예약도 받습니다.)
Tel : 051) 633-8445~7
Fax : 051) 634-8446
<http://cafe.naver.com/jbsw8445>

○오시는 길
부산광역시 남구 정고개로 93번길 41(문현동)
문현동 배전고등학교 후문, 부산우유농협 본점 앞
· 지하철 : 2호선 문현역 1번 출구 하차, 엘리베이터 이용
· 버스 : 68, 23, 26, 134, 남구3 / 문현교차로에서 하차
▶ 개방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부산자비선원 검색

부산자비선원
대연동, 문현교차로, 진포동, 자성대, 부산자비선원, 배정고등학교 후문, 부산우유농협본점, 아시아공동체학교